

불자들은 부처를 버려야 성불한다

불교인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불한 존재라고 믿고 있다. 성불하였다는 것은 금강불괴(金剛不壞)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즉 다시는 죽지도 괴멸(壞滅)되지도 않는 몸으로 변화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은 불멸의 몸이 아닌 불상으로 존재할 뿐이다. 불자들이 만나보고 싶을 때 실제로는 만날 수 있는 상주불변의 존재가 아니다. 상주불변의 존재라야 진리를 완성한 진실한 부처가 되는 것이다.



석탄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성철 스님의 설법처럼 불자들은 석가를 버려야 한다.

감로의 정도를 설하지 못한 석가

석가가 열반에 들기 직전에 설하였다는 대반열반경이라는 경전이 있다. 대한민국의 불자들은 조계종이 금강경을 소의경전으로 두고 있기 때문인지 금강경만 열심히 외우고 있지 진실로 석가모니의 비밀한 뜻이 숨겨져 있는 열반경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누구나 죽기 전에는 진실을 말한다고 한다. 더욱이 수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있던 석가가 제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 스승으로서 진실을 숨기고 열반에 든다면 스승으로서의 자격이 없겠지만 석가는 열반경에 그동안 감추어 두었던 비밀을 밝히고 있다.

열반경에 숨겨진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 열반경 첫 부분에 가섭을 비롯한 제자들이 열반에 들려고 하는 석가를 말리는 대목이 나온다. 대반열반경 2권 수명품(壽命品) 1의 2를 보면 “唯願如來(유현여래) 示導我等(시도아등) 甘露正道(감로정도) 久住於世(구주어세) 勿入涅槃(몰입열반) 오직 원하옵건대 여래시여! 우리들에게 감로의 바른 도를 보여서 지도하시고 세상에 오래 사시고 열반에 들어가시지 마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다. 제자들은 성불한 부처님이라면 생사를 마음대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이 감로의 정도를 설하겠다고 하신 대로 먼저 감로의 정도를 설하신 후 열반에 드시라고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제자들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석가는 감로의 정도를 설하지 아니하고 열반해버리고 말았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기록한 경전이 있다. 대보적경 64권에 석가는 감로의 정도를 얻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於六年中修苦行(어육년중수고행) 如來不得甘露道(여래불득감로도)” 6년 동안 고행을 닦았으나 여래(석가)는 감로의 도를 얻지 못했다는 고백이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왕자의 신분이었던 석가는 생로병사를 해탈하기 위하여 호화찬란한 궁전과 자신의 모든 특권을 버리고 설산(雪山)에 들어가 뼈를 깎는 고행을 6년을 했다고 한다. 피골이 상접(相接)할 정도의 단식(斷食)과 온갖 고행을 하였지만 그는 득도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위의 대보적경 구절대로 석가는 감로의 정도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열반에 들기 전 간절한 제자들의 부탁, 감로의 정도를 설해달라는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감로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감로란 무엇이란 말인가? 대반열반경 5권 사상품(四相品)에 감로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又解脫者即無爲法(우해탈자즉무위법)…又解脫者無病(우해탈자무병)…是甘露者即眞解脫(시감로자즉진해탈) 眞解脫者即是如來(진해탈자즉시여래) 轉法輪王(전법륜왕)…又解脫者無有翻譯(우해탈자무유투역)…” 또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무위의 법이요…또 해탈이라고 함은 병이 없으니…이 감로가 곧 참해탈이요 참해탈이 곧 여래이며…참해탈한 이가 곧 여래요 전법륜왕이니…또 참해탈은 다름이 없나니라. 즉 감로란 함

이 없이 행하는 무위의 법이자 참해탈이며, 또한 감로를 얻은 자가 여래이며 전법륜왕이라는 것이다. 이 경에 따르면 석가는 감로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해탈하지 못하였으며, 그러므로 여래도 아니며 성불하지도 못한 것이다.

경전에 예언된 미륵불의 출현

감로는 미륵불이 가지고 나온다고 열반경에 기록되어 있다. 미륵불에 대한 경전적 증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륵불은 조씨의 성으로 나온다고 미륵진경에 기록되어 있다. 삼관자비대제주(三官慈悲大帝主) “사죄천조중생(赦罪天曹救衆生) 구고천존구내세(求苦天尊來救世) 삼일제 태조의 부처님께서 조씨의 사람의 몸을 타고 오셔서 중생들의 죄를 담당하고 구원한다. 존귀한 태조의 부처님께서 오시어 이 세상을 구원한다. 위 경전 구절대로 조씨의 성으로 출현하게 되어 있다.

둘째, 미륵불은 한국에서 출현한다고 증일아함경 49쪽에 기록되어 있다. “장래지세유불명(將來之世有佛名) 미륵출현어세(彌勒出現於世) 이시국계명(爾時國界名) 계두왕소치지저(鷄頭王所治之處) 장래세상에 있게 될 부처의 이름은 미륵불로서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된다. 이때에 미륵불이 출현할 나라의 이름은 탈해왕의 후계자로서 계두왕이 다스리는 곳(계림)이다. 계림은 신라를 일컬으니 한국을 말한다. 위 경전대로 한국 땅에서 미륵불이

나오게 되어 있다. 셋째, 미륵불은 불기 3007년에 나오신다고 증일아함경(增壹阿含經)과 화엄경 등에 기록되어 있다. “미륵보살(彌勒菩薩) 경삼십겁(經三十劫) 응당작불(應當作佛) 지진등정각(至眞等正覺)” <증일아함경(增壹阿含經) 11권 선지식품(善知識品)> 미륵보살이 30겁을 지나면 반드시 참된 평등함의 바른 깨달음으로 부처를 이룬다. 또한 미륵불이 나오실 때에 우담화가 핀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도처에 미륵부처님을 상징하는 우담화가 피고 있다. 여기서 1겁은 100년을 의미하므로 3000년이 지나서 미륵불이 된다는 뜻이다. 또한 “지삼천년후불당출현(知三千年後佛當出現)… 지칠일후불당출현(知七日後 佛當出現) 만칠일일(滿七日已)” (화엄경 입법계품 37-11) 삼천년이 지나면 부처님께서 마땅히 나타나심을 알 것이나… 7일 후에는 부처님이 나타나심을 아는데 7일을 다 채우나니라. 여기서 하루는 년으로 계산하므로 3007년에 미륵불이 나온다는 의미가 된다.(자세한 설명은 『일체중생근본제외잡소멸경』, 미륵신앙연구회편 참조)

미륵불의 증표 감로

넷째, 미륵부처님의 증표는 감로(甘露)라고 열반경 전편에 기록되어 있다. 그중 한 구절을 적시(摘示)하면 대반열반경 5권 여래성품(如來性品)의 다음과 같은 구절이다. “如來無病是故法身亦無有病 如是無病即是如來 死者名日身壞命終. 是處無死即是甘露 是甘露者即眞解脫. 眞解脫者即是如來” 여래는 병에 걸리지 않고로 범신이라고 하며 무병인 고로 여래라고 한다. 여래는 죽음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곧 감로(甘露)이며 감로가 참된 해탈이다.

미륵불을 만나 감로(甘露)를 받아서 해탈에 이르지 아니하면 누구나 죄업을 벗어 나지 못한 동생 내는 인간에 머물게 되어 결코 생로병사를 해탈한 진인(眞人)이 될 수 없다. 석가모니는 제자들이 미륵불을 만나서 성불하기를 원하였건만 불도(佛道)를 닦는다고 하는 자들이 교만과 아집에 빠져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 불자들이 그토록 원하던 감로(甘露)의 정도(正道)를 닦아 성불에 이르기 위한다면 미륵불을 만나보기를 권한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55>

“은혜를 소모한 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은혜를 받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은혜를 간직하는 싸움을 쉬지 않고 해서 은혜를 간직하는 마음의 그릇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써야 되는 것이다.

그릇도 준비되지 않은 채로 은혜를 많이 받고자 하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이다. 은혜를 간직하는 그릇은 작으면서, 조금

밖에 간직할 수 없으면서 하늘만큼 은혜를 받으려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다.

조금밖에 간직할 수 없는 그릇에 한 드림통의 물을 부으려면 담아지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은혜를 소모한 죄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이기는 삶

기회 포착의 요령

기회(機會)는 우연히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기회는 평소 애 준비된 사람, 항상 깨어있는 사고(思考)를 가지고 포기(拋棄)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항상 자신을 만들어가는 사람, 준비된 사람이라야 우연한 기회의 순간을 잡을 수 있다.

운이 좋기로 유명한 골퍼 게리 플레이어는 “희한하게도 연습할수록 운이 좋아졌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성공과 운은 확실하게 기회를 붙잡는 능력을 연마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오는 법이다. 기회를 붙잡으려는 열심이 있어야 한다. 기회를 발견하려는 노력 없이는 기회는 나타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흔히 ‘내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다. 하지만 기회가 사람을 저버리거나 오려려 사람이 기회를 저버리고 그것이 기회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기회는 붙잡을 수 있는 사람에게,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더 자주 오는 법이다.

기회는 늘 우리 곁에 널려 있다. 그러나 아무나 기회를 잡지는 못한다.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구하는 사람에게만 기회는 그 모습을 드러낸다. 기회를 잡으려면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늘 목표 의식을 갖고 생활하면 잠재의식이 나를 기회가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인생은 홀로 험한 바다를 건너는 일이다. 그러므로 빠져 죽거나 건너가나(sink or swim) 둘 중 하나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를 저어야 한다.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혀 망망대해에 빠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손발을 움직여 살려도 발버둥치는 사람에게 기회는 주어지는 법이다.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때 기우제를 올리는데, 그러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한다. 왜 그럴까? 그것은 비가 내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우제를 올리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을 능가하는 재능은 없다. 계속하는 힘이야말로 성공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실패하더라도 실망해서는 안 된다. 한 번 기회를 잃어도 낙망(落望)하지 말고 다음 기회를 포착할 태세를 갖추는 유연성을 가져라.

기회 다음에 또다시 기회가 있음을 잊지 마라. 하나의 기회를 포착했다고 안심해서도 안 되며 보다 향상하겠다는 의욕을 잃어서도 안 된다. 인생의 길은 크고 작은 오르내림이 따른다.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동안 사람은 갈리고 닳아고 연미된다. 인간은 비탄 속에서 인생의 깊이를 알게 되고 곤경에 처했을 때 비로소 세상의 참맛을 알게 된다.

우리의 선조들이 이르기 인생은 어려운 일과 좋은 일을 꼬아놓은 새끼 줄 같다고 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좋은 일도 없다. 늘 마음 열어 놓고 느긋이 준비하고 있을 때 기회가 찾아온다. 그런데 기회는 눈 깜짝할 새 지나가 버리고 만다. 이를 잡으려면 항상 깨어있어야 하며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이를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래야 기회가 눈에 보인다. 눈에 보아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새책이 나왔습니다! 고보문고, 알라딘에서 판매 중

팔만대장경의 비밀 장

감로의 도로서만 생로병사 해탈하리라

기존불교를 뒤엎는 석가세존의 말씀, “나와 석가를 버리고 보살마하살을 찾아가라”

3000년 만에 해독되는 '이자삼점'

열반경만 왜 유독 비밀장(秘密藏)이라고 했을까? 불교계는 왜 열반경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려고만 하는가!

- 열반경 상 보살마하살은 석가를 지칭하지 않는다.
- 불법승 삼보는 진삼보(眞三寶)가 아니다.
- 석가세존은 열반에 들지 못했다.
- 석가세존은 감로(甘露)의 정도(正道)를 설하지 못했다.

저자 석추출 스님 * 승려임을 밝힌 부 정가 15,800원 * 도서출판 해인

진짜 구세주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구세주로 만드는 자 ③

“일곱째 천사는 성경 지식이 많아서 구원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나라는 것이 마귀라는 사실을 일찍이 깨닫고 오십 평생을 나와 더불어 싸워 지면 또 일어나 싸우고, 지면 일어나 싸우고 이렇게 수천만 번 넘어지고 일어나는 연단 끝에 희생과 인내심을 무기로 나라의 주체의식을 제거하여 성령으로 거듭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없어지고 하 나님이 본래의 나라는 주체의식의 자리에 있게 되면, 성경 전체에 인봉된 천국비밀과 구원론, 구세주론, 믿음론, 생명과일론, 선악과론, 말세론, 부활론, 순교자론 등을 저절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 '삼수의 원리와 완성자', 118쪽 인용

“이긴자의 일대기라고 할 수 있는 『삼수의 원리와 완성자』라는 제목의 책은, 하 드커버 책표지로 오랫동안 소장하고 읽는데 용이하게 하였고 책속에 수록된 구세주를 배출시킨 밀실과 해와 이긴자 등 여러 사진은 컬러사진으로 했다. 한정판 300원으로 제작되어 현재 70원이 남아 있다.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다.*